LG필립스LCD, 전략적 제휴기업 접촉

우리증권, Philips 지분매각 주가상승 촉매 … 물량부담 이슈 해결

우리투자증권은 10월12일 LG필립스LCD에 대해 Philips의 지분매각이 주가 상승의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영주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3/4분기 영업실적에서 확인했듯 LG필립스LCD의 펀더멘털은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됐고 3/4분기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 비해 월등한 영업실적 개선을 나타냈다"며 "하지만 주가는 6월 말 이후 시장 평균대비 11.6%나 하회했는데 Philips 물량의 출회 가능성이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Philips는 지분매각을 통해 보유 지분율을 기존 32.9%에서 19.9%까지 축소시켰고, 나머지 지분 19.9%는 당분간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최근 수개월간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됐던 오버행(물량부담) 이슈는 해결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G필립스LCD가 전략적 제휴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지분매각을 요청하면 Philips가 전략적 투자가에게로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있다"며 "LG필립스LCD는 현재 1-2개의 전략적 제휴 파트너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12>